

## 53 ● 주물공장 조형공에서 발생한 복막 악성중피종

성별	남성	나이	64세	직종	조형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62년부터 44년간 주물공장에서 조형공으로 근무하였고 2006년 퇴사하였고 2010년에 복막 “악성 중피종”을 진단 받았다.

### 2 작업환경

○○○은 1962년(17세)부터 여러 주물공장에서 조형공으로 근무하였고 마지막 회사인 □사업장에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근무하였다. 해당주물공장의 공정은 “용해-CO2 조형-주입-형해체-탈사-연마-출고-열처리-가공-조립-도장-출고” 순으로 진행이 된다. 해당 작업장의 용해작업과 쉘중자 조형 위치에서 석면 노출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○○○의 작업장이 석면이 사용된 용해작업장과 가까운 석면의 노출 가능성이 있다.

### 3 의학적 소견

2010년 1월 서혜부 종양으로 고환절제술을 시행받고 왼쪽 정삭(Spermatic Cord, 精索)과 복강의 “악성 중피종을 진단받았다. 2010년 6월 복부팽만으로 혈액종양내과에 입원 후 치료하였으나 7월에 사망하였다.

### 4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의 복막 악성중피종은 문헌리뷰 및 과거 역학조사 자료에서 주물공장의 석면노출을 확인하였고, 사업장내에서도 석면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직접노출은 아니지만 간접노출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,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따라서,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.